

에너지 經營人 朝餐간담회

商工資源部長官, 에너지·資源정책방향 제시 統合후 상공자원부의 産業육성방향 가능

에너지界 지도급人士 150명 참석 성황



〈에너지界의 지도자급 150명이 모인 가운데 朝餐會에서 統合후 商工資源部の 에너지·資源정책방향을 들었다〉

지난 7월 7일 한국에너지협의회/WEC 국내위원회는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에너지經營人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朝餐懇談會를 열었다.

이날 아침 조찬간담회는 참석자들이 대부분 에너지협의회 회원사의 경영층이므로 지난 4월 에너지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된 李宗勳 韓電社長이 취임인사를 겸해 開會인사를 했으며 이어서 李東勳 상공자원부차관이 “에너지·資源政策의 課題와 方向”이라는 演題로 약 1시간 동안 연설했다.

에너지經營人들은 이날 演士로 초빙된 金喆壽 상공자원부 장관이 부득이한

WEC의 “첨단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개선 위원회” 한국측 위원인 포항제철의 이인범 박사가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부터 일본 동경전력에서 개최된 이 위원회 제1차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이위원회는 WEC 일본국내위원회가 제안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위원장은 일본의 Dr. T. Ishii이며 부위원장은 Dr. M. Levine(미국) 및 Dr. M. Hirose(일본), 위원으로는 한국등 주요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Levine박사가 먼저 회의개요를 설명한후 첨단기술을 적용할

WEC 첨단기술이용 에너지효율위원회 浦鐵 이인범 박사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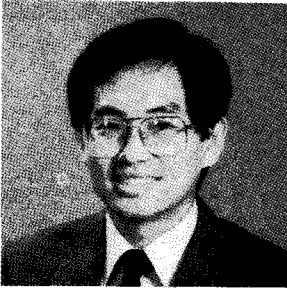
수 있는 공장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주로 그동안(1950년~현재)에너지 사용량 및 효율추이와 각나라간의 에너지효율 비교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등이 있었으며, Case Study로서 Inoue씨(일본철강협회)가 일본 제철공정에서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앞으로 빌딩, 모터, 석유화학, 시멘트,

수송, 전력시스템등에 대한 각나라의 Case Study가 요구되었다. 또한 Hirose교수(일본 동경대)가 첨단기술의 정의와 활용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여기서 첨단기술은 주로 전자 및 정보기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Multi Media, PC, Fuzzy Logic, ISDN, AI Software 등이 에너지 절감의 주요 첨단 핵심 기

국회관계 日程 변경으로 참석치 못해 아쉬움을 나타냈으나 文民政府의 에너지문제 전반에 걸친 政策方向을 가능해 볼 수 있는 뜻있는 기회를 가진데 대해 만족해 했다.

1년여만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이날 간담회 시작전, 다과회에서 에너지계의 지도급人士들은 삼삼오오 모여 그동안 쌓인 에너지 문제의 情報交流와 友誼增進을 도모하기 위해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인범박사)



술로 고려되었다.

이들은 에너지센터, 컴퓨터 통합생산(CIM), 중앙집중식 에너지시스템등에 활용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사례보고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각 나라에서 첨단기술을 에너지 절감에 적용한 Case Study가 요구되었다.

이 위원회는 각나라별로 업무분담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산업, 빌딩에너지관리, 모터(VVVF와 Inverter Control), 석유화학, 시멘트, 펄프 및 제지, 알루미늄공장, 전력시스템(배분 등과 CIM)에 대하여 에너지절감을 위한 첨단기술활용사례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현장방문으로는 Fujitsu Lab.에서 첨단 전자시스템 및 적용연구 현황을 시찰했으며, Kanagawa경찰서를 방문하여 첨단교통관제시스템을 통한 차량에너지 절감사례를 보고받았다.

다음회의는 내년 1월 17, 18일에 미국 Berkely대학에서 하기로 결정되었다.

'93년 WEC 집행이사회-인도네시아 文熙晟한전이사장 등, 대표6명 참석

1993년도 세계에너지회의(World Energy Council) 집행이사회(Executive Assembly)가 9월 20일에서 27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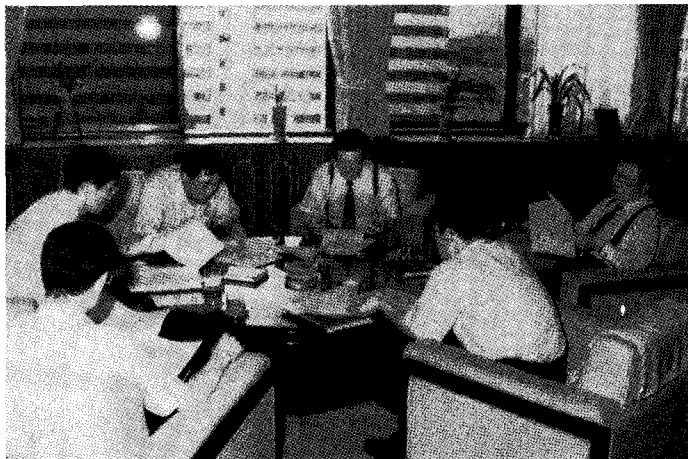
이번 회의의 일정은 집행이사회의 본회의에 앞서 이틀간 WEC 산하 상임 및 기술분과위원회가 있으며, 본회의 중간에는 WEC Commission "Energy for Tomorrow's World" 최종보고서 발표 및 인도네시아 에너지의날 행사가 개최되고, 본회의 종료후에는 인도네시아의 각종 에너지시설을 방문하는 이틀간의 산업시찰이 실시된다.

한국국내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 금년도 집행이사회 참가자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문희성 이사장, 조경해 처장(이상 한전), 장기옥 사장(한기), 김진모 이사장(석탄사업단), 김영철 사무국장, 이성룡 과장(이상 에너지협) 등 6명으로 한국대표단을 구성하였다. 대표단 단장에는 문희성 이사장을 추대하고 참가자

별 일정을 협의하는 한편 집행이사회 본회의시 한국측의 활동사항을 최종 결정하였다.

금년도 WEC 집행이사회에서 다루어질 주요안건을 요약하면, ① 집행이사회 부의장 1명 선출 및 상임위원회 위원 7명 선임, ② WEC 발전계획에 대한 토론 및 재원조달방안 협의, ③ 예·결산 및 '94년도 연회비 인상등 재정문제, ④ 신규 회원가입, ⑤ WEC 제16·17차총회 준비상황 점검, ⑥ 내년도 집행이사회 준비상황 점검, ⑦ WEC 상임위원회 활동보고, ⑧ 회원국 국내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WEC의 발전계획 그자체에 대해서는 전회원국이 이미 합의한 바 있으나, 이의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대표 및 집행부간에 상당한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단 6명이 文熙晟 한전이사장 주재하에 준비회의를 가졌다>